序

族譜란 一族의 血統과 家系를 表示하여 一家의 歷史를 記錄하는 것으로 宗親의 團結과 和合을 爲한 氏族의 寶鑑이다。또한 族譜는 個人의 權威와 名譽보다도 宗族이나 宗中을 中心으로 生覺하는 協同的 團結과 一体感을 造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所重한 文獻이기도 한것이다。

무릇 國民으로서 自己나라의 歷史를 正確히 알아야하고 理解해야 한다는 것은 至極히 當然한 일이요 하나의 子孫으로서 自己祖上에 對한 歷史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이또한 子孫된 者로서의 義務인 것이다。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關心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實로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수 없는 것이다。뿌리없는 나무가 없듯이 祖上없는 나는 있을수 없다。祖上을 度外視한다는 것은 곧 自己自身을 無視하는 結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우리 宗門은 일찌기 二千餘年前 우리 始祖께서 蘿井에서 誕降하시고 寶令十三歲에 六部村長의 推戴로 王位에 오르시여 大新羅를 創建하신 以來 中始祖以後 顯祖들이 許多하여 國家民族을 爲하여 歷代를 通하여 政治 文化 經濟 敎育等 其他各方面에서 크게 貢獻한 바 있으셨으니 우리 後孫들은 이내 옷깃을 여미고 敬虔한 마음으로 祖上에 對한 敬慕의 情을 가지고 感謝하는 同時 크나큰 矜持를 가져야 할것이다。

複雜하고 奔忙한 社會生活을 憑藉하고 核家族 思潮의 餘波로 나 自身만을 固執하는 風潮가 蔓延祖上崇拜의 精神이 解馳해지고 宗親間의 疏遠해짐이 날로 甚해가고 있는 此際壺谷公癸丑派譜 以後 實로 七十六年만에 己巳派譜을 發刊하게 되니 그 感懷 깊지 않을수 없다。이를 契機로 모름지기 우리 後孫들은 敬祖精神으로 大同團結和合하여 國家社會에 많은 貢獻을 함으로서 거룩하신 祖上任들의 恩功에 報答해야 할 것이다。끝으로 宗門의 日益繁榮함을 祈願하면서 序에 代身하는 바이다。

西紀一九八九年三月 日

委員長 濟源 謹識

竹山朴氏壺谷公派譜序文

我國古來總稱三十年爲一代每一代一次修譜最宜之事也自庚子譜年至今己巳滿三十年即所謂一代者而修譜之最適年也當此時吾壺谷派譜遂成甚欣快事也惟我竹山朴氏大同譜修始自李朝英廟辛卯年爲八卷其後正廟戊午年爲五卷又於哲宗朝乙卯年爲九卷至高宗皇帝己卯年爲十三卷至大韓民國四十二年庚子爲十卷是吾大同譜之略史也己卯譜後至庚子譜中間八十年吾壺谷公派譜單卷賴前外部主事濟九族兄鍾浩族叔二賢而成之補塡八十年空間此寔吾派之欣幸事也感謝何極焉自今四五年前南原知申公派通告來要忠顯公派譜合同編修事此實正當勝幸之擧也而吾水谷派當時有司及理事等以農繁期難可遂行理由不應其要請不得合譜甚遺感矣數年前有司及理事等發議派譜事傳告僉宗收議決定修譜上下二卷今已完成欣幸何似夫譜修之義趣目的何在耶在於上以尊慕祖先之盛德下以尤篤宗族之和睦情密使無疎遠之弊又進以明昭穆遠近次序無亂行列計寸也余但願僉宗熟讀各譜所載名祖諸位行蹟跋記序文則崇祖之心愛族之情蔚然感發矣祇囑祇囑且謝今番修譜從事諸執事數年間誠心努力乃遂告功甚幸耳余本短文拙筆豈敢多言際玆略陳數行蕪辭以供僉宗叅考焉

西紀一九八九年四月　日　壺谷公　十七孫　乙巳生　濟東　謹識

辛卯譜(西紀一七七一年 英宗四七年)序文 第一次大同譜

氏族之、有譜舊也盖以一身而、爲兄弟、兄弟而、爲百千萬億人之、散處於東西南北之地以至服盡而親盡、親盡而情盡憂喜而不相弔慶生死而不爲欣戚終爲塗人而後已譬如一樹之花隨風飄落有高者低者有遠者近者有錦菌者有泥溷者其歸有千萬之殊而其本則根而株株而枝、枝而葉未嘗不同出於一氣也、古之仁人、孝子愍其然也作爲世譜溯源而窮其系派沿流而別其支裔旁咨而遠搜列錄而分書雖百十代之遠千萬人之繁而同歸於一本開卷而瞭然於是乎疎者親而遠者近莫不生油然孝悌之心此親九族之所以先於章百姓協萬邦而太史公序列傳必以世家爲重者也譜之不可無也如是夫朴氏、東方之大姓而其籍於竹山者、爲尤顯自上世以來、名公鉅卿指不勝屈而如文烈文匡、平章諸公之於高麗文憲公之於我朝最其著也、讀其豊功偉烈於國乘野史者未嘗不想象景仰而獨其世德宗派則、無譜牒可考、以數公之名德而茫然不知其所自蘇所歸又其支派之不出於數公而散居於諸方者或微而不振或繁而不記將不免疑者益疑遠者益遠而同歸於所不知之何人豈非重可惜也此固朴氏先世之所未遑而其賢子孫者、所不可不勉朴正言奎壽瑞一氏即其人也常慨然於斯遂與其宗中同志之居在旁郡如斐然甫若而人合謀而同力宗支之在遠者發單而　聚事力之未逮者、收財而拮据孜孜矻矻血誠經紀釐爲朴氏世譜若干卷不日而工斷手夫譜鉅役也人家之縱事於斯者皆不免動費年歲或至籍力於名藩巨邑省有之而瑞一氏獨能以私力辦此數千年未了之事於數月之內非至誠而能如是乎、此即所謂、仁人孝子之心也、人有仁人孝子之心而不能世其家者、非吾攸聞況吾嘗聞、文憲

公、以嬰臼之義綿忠臣之後至今通顯于氏朝、爲善獲福天理也豈有厚德及於人而餘慶嗇於家者耶吾知瑞一氏之家必昌而大無疑也、譜旣成瑞一氏托不佞爲之序不妄接朴之彌甥也世遠屬疎尚不知派系之所自出今因瑞一氏之譜而始曉然豈獨無向所謂油然之感乎遂不辭一言而相其役英宗四十七年辛卯仲秋上澣外裔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俞彦述謹序

성씨와 일가의 족보 둔것이 예로다。대개 일신으로써 형제가 되고 형제로써 백과 천과 만과 억의 사람이 되어 동서남북의 땅에 흩어져 처하여써 복입기 다하면 친절함이 다하고 친절함이 다하면 정분이 다할때까지 이르러 근심하나 기뻐하나 서로 위문하고 경사치 아니하고 생망하나 즐기고 슬퍼하지 아니하여 마침내 길가는 사람이 된후에 말지니 비유컨대 한나무의 꽃이 바람을 따라 나부끼고 떨어져서 높고 낮은것도 있으며 멀고 가까운 것도 있으며 비단 방석에 오는것도 있으며 진흙 뒤깐에 빠진것도 있어 그 돌아가는 것이 천가지 만가지 다름이 있으나 그 근본인즉 뿌리로 줄기로 가지로 잎으로 하여 일찍 한기운으로 같이 나온것이 아님이 아니로다。옛적에 인인과 효자가 그러한 것을 불쌍히 여겨 대로 족보를 만들제 근원을 거슬러 그 계파를 궁구하고 흐름을 따라 그 지손을 분별하여 옆에 물어보고 멀리 뒤지어 베풀어 기록하고 쓰기를 분명이 하여 비록 백십대가 멀고 천만인이 성할지라도 같이 한 근본에 돌아가서 책을 열면 환하게 밝아지니 이로부터 섬기던 자는 친절하고 멀던 자는 가까워져서 유연한 효제의 마음이 발생치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구족을 친절이 하자면 먼저 백성을 법하고 만방을 화협하여 태사공이 열전을 서 문

할제 반드시 세가로써 소중히 여기는 바니 족보란 가이 없지 못할것이 이와 같도다。박씨는 동방에 대성으로 그 죽산에 호적함이 더욱 현저하여 상세로부터 써 옴으로 이름있는 벼슬과 거룩한 벼슬들을 손꼽을수 없으니 이렇듯이 문열공과 문광공과 평장공의 고려때와 문헌공의 이조때에 가장 드러난 분이라 그 풍후한 공과 위대한 엽을 국승과 야사에서 읽어본재 일찌기 상상하고 경앙하지 않으리 없으나 홀로 세덕있는 종차인 즉 보첩이 전혀 없어 두어분의 명덕으로써 상고하나 망연이 그 온곳과 간곳을 알지 못하며 또 그 지파의 소자출도 두어분에게서 계통됨이 틀림없는데 모든 방면에 산거하여 혹은 번성하여 기록치 못한즉 장차 섬긴 자는 더욱 섬기고 멀던자는 더욱 멀어져서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곳에다 한가지 들어가게 되니 어찌 거듭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박씨 선세에서 여가가 없던 바인데 그 어진 자손되는 분들이 가히 힘쓰지 아니치 못할바로다。박정언 규수 서일씨가 곧 그사람인즉 항상 이에 개연하여 드디어 그 종중 동지가 부근 고을에 거주하는 비연씨 같은 분 몇사람으로 더불어 합모 동력하고 종파와 지파의 먼거리에 있는 자에게 통문을 발송하여 모이게 하며 일과 힘이 미급된 것을 재정을 수합하여 길거 할제 자자하고 골골하여 혈성것 경리하여 박씨 세보 약간 권을 정리한지 몇날이 안가서 공사가 손에 끝내니 무릇 족보는 큰 역사라 사람의 집집마다 이에 종사하는 자가 다년세를 허비하여 혹은 힘을 이름나고 커다란 고을까지 빌림을 면치 못하는자 있거늘 서일씨는 홀로 능히 사람힘으로써 수천년 마치지 못한 일을 수개월 동안에 판단하였으니

지성이 아니고 능히 이같을손가 이것이 곧 이른바 인인가 효자의 마음이로다。 사람으로서 인인과 효자의 마음이 있고야 능히 그집을 대로 전하지 못하였다는 자는 나들은바 아닐뿐더러 하물며 나 일찍 들으니 문헌공은 영구의 의리로써 충신의 후손을 이어 주어 지금까지 조정에 통하고 현달하게 하니 착한 일을 하여 복을 얻은것은 하늘의 이치라 어찌 후한 덕이 사람에게 보급되고 남은 경사가 집안에 아끼리요。 나 알괘라 서일씨의 가문이 반드시 창성하고 커질것이 의심이 없도다。 족보를 이루 성취할제 서일씨가 불민한 사람에게 부탁하기로 서문을 지으라 하니 불민한 사람은 박씨의 외손이라 세대가 멀고 친속이 성길어 오히려 파계의 소자출을 알지 못하였더니 이제 서일씨의 족보로 인하여 비로소 깨달으니 어찌 홀로 아래 이른바 유연지감이 없으리요。 드디어 사양치 않고 한말로 그의 역사를 도와주노라。

註：太史公은 漢時司馬遷嬰白는 程嬰과 公孫臼二人의 名彌甥은 外孫

戊午譜(西紀一七九八年 正祖二二年)序文 第二次大同譜

帶方朴生東訥將重刊其竹州世譜跋涉至京師致其諸宗人之言要余爲序余曰唯唯程子嘗言管攝天下人心收宗族厚風俗使人不忘本須是明譜系蓋譜系之不可不明如此而其效至於忠義立而朝廷固則又奚但一家之事哉今朴氏之爲此蓋亦有聞於程子之旨余固不能文其於相茲役也何敢終靳抑又惟念朴氏自麗朝代有聞人若文匡公之文章德業蔚然爲後世之標準而松菴公盡忠所事入社門洞以自靖文

憲公相光陵盛際厥有成績若是者考其世德豈不焯焯震耀而顧其後近甚零替不振君子疑焉然是譜之成而凡爲朴氏之族者相與懷其典型慕其德烈責孝課忠以似述其風則其爲門戶之光又豈止於不忘本而已哉斯又朴氏之所宜交修者也

正祖二十年丙辰孟冬

官提學 閔鍾顯 序

崇政大夫行禮曹判書兼判義禁府事弘文官提學 閔鍾顯 序

대방고을 박생동눌이 장차 그 죽주세보를 재차 간행할새 발섭하여 서울에 이르러 그 여러 종인의 말을 전하고 나에게 서문하기를 요구하거늘 나가로되 옳도다 정자가 일찍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심을 관섭하려면 종족을 수합하며 풍속을 후이할 것이요、사람으로 하여금 근본을 잊음이 없게 하려면 모름지기 보계를 밝히라 하였으니 대개 보계를 가히 밝히지 아니치 못함이 이와 같나니 그 효험이 충성과 의리가 성립되어 조정이 완고한대 이른즉 또 어찌 다못한 집안의 일뿐이겠는가? 이제 박씨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대개 또한 정자의 뜻을 들음이 있도다。나가 진실로 글을 능히 못하나 이 역사를 도와주는데 어찌 감히 끝까지 사양할까 또 생각하건대 박씨는 여조로부터 대대로 명망이 있으니 이렇듯이 문광공의 문장과 덕업이 울련히 후세에 표준이 되며 송암공은 섬기는 바에 충성을 다하여 두문동에 들어가 수절하였으며 문헌공은 광릉을 도와 성적이 있었으니 이와 같으신 분은 그의 세덕을 상고하여 볼때 어찌 작작이 빛나지 아니하리오마는 근자에 와 그 후손을

불때 심히 영체하여 성하지 아니하니 군자들이 의심하도다。 그러나 이 족보를 이룰때 무릇 박씨의 일가되는 분은 서로 더불어 그 전형을 생각하며 그 덕업을 사모하여 효도를 책임지고 충성을 과정으로 하여 유사하게 그 가풍을 기술한즉 그 문호의 광채됨이 또 어찌 근본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데 그치고 말뿐이겠는가? 이것이 또 박씨의 마땅히 서로 수의할 바로다。

정조 二十年 병신맹동에 숭정대부 행예조판서 겸 판의금부사 홍문관제 학 민종현은 서문함。

乙卯譜序(哲宗六一年一八五五年) 第三次大同譜

譜者補也盖補其既往而衍其方來也衍之義亦補也邵子曰周易是加倍法此又補與衍之推也推此則士夫家廣譜徵族之規可驗也己竹山朴氏方治其譜而徵序於余余以爲我東最重譜系觀於譜而知其世觀乎世而知其人此乃世祿之家與國同休戚故也然而先有祖先之積德貽休必成子孫之繩武繼蕃按公家狀自勝國入我朝世襲簪組益大而昌蔚然爲三韓甲乙之族不亦盛哉爲其子孫者或不識此個義諦只視以尋常辨族之書則實非世其家德國與同慶之意也其亦存心不墜哉則受百衍千於是焉在而豈不爲熾盛無窮之譜補也哉然則此非但朴氏譜也凡我士夫之所同然時余宗譜際成完秩既以是語於諸宗仍以書於此譜至若敦睦親恤之誼須詳見蘇明允譜引而勉之哉

判中樞府事 徐浚輔 撰

족보란 것은 돕는 것이니 대개 그 이미 간일을 돕고 그 장차 오는 것을 넓히는 것이며 넓히는 의미도 또한 돕는 의미이니 소강절이 가라사대 주역은 이 곱하는 법을 더한다 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돕고 다못 넓히는데 미룸이라 이를 미루어 본즉 사대부 집들이 족보를 넓히어 종족을 부르는 규모를 가히 지험하겠도다。 죽산박씨가 바야흐로 그 족보를 다시를새 서문을 나에게 구하거늘 나 말하기를 우리 동방에서 족보 계통을 가장 키엽게 여기니 족보를 보면 세대를 알고 세대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나니 이것이 공세대로 식록하는 집들이 나라로 더불어 존망을 한가지 한 연고라 그러나 먼저 선조의 쌓은 덕과 끼친 아름다움이 있으면 반드시 자손의 성한 자취를 계승함을 이루도다。 공의 가장을 읽어 본즉 고려로부터 이조에 들기까지 대로 습작하여 더욱 크게 창성하여 우연히 三한에 갑과을의 세족이 되니 또한 거룩치 않은가? 그 자손된자 혹시 이러한 의체를 알지 못하고 다만 심상이 일족을 분변하는 서책으로 써보면 곧 실로 세대로 그 가덕과 나라로 더불어 한가지 경사로 여기는 뜻이 아닌즉 또한 마음에 두어 떨어지게 하지 아니한즉 백을 받아 천을 넓히는 것이 이에 있나니 어찌 치성하여 무궁한 족보 도움이 되지 않으랴。 그런즉 이것이 다만 박씨족보뿐 아니라 우리 사대부들이 다 같은바라。 이 지음에 우리 족보의 완질을 이룰제 이미 이러한 말로써 여러 일가에게 말하고 인하여써 이 족보를 쓰노니 돈목하고 친애하는 정의는 소명윤의 족보를 자세히 보고 인도하여 힘쓸진저。

己卯譜序(高宗一六年一八七九年) 第四次大同譜

人家譜牒至於三修四修則可驗淵源之遠子孫之繁孝義之篤也淵源遠矣子孫不繁莫能爲譜子孫繁矣孝義不篤亦莫能爲譜一之爲難其可再而三乎竹山朴氏譜今至四修役垂訖朴君秉周問序於余余謂朴氏貫竹山者爲吾東巨族近世稍不振然孝義靡替耳孝義靡替則不振可振焉有培壅而不茂渟滀而不洩者乎今此修譜固出於朴君尊祖收族之苦心而千支百派散處四方情志非素孚面貌未嘗接又無勢位之可以動人苟非孝義之心應之如響赴之若渴則安能於數年之內事集而功就若是其速乎余觀近日經紀譜事者或延至屢歲或竟無成所乏者非財力也人於始祖只認以垂胄之遙見世次繼錄而知血氣之相禪於遠族轉視路人之疎見行第列書而知枝葉之相附則祖孫爲一體宗族爲一室譜牒之關於人紀世教育如此者朴氏諸君其母以苟當今日之役爲悅而益勉乎一體一室之義則朴氏之族從以昌大非直譜牒之世述焉已矣

大匡輔國崇祿大夫領敦寧府事 安東 金炳學 撰

사람의 집에 보첩이 세번째 네번째 닦음에 이른즉 가히 연원의 먼것과 자손의 번성함과 효의의 돈목함을 징험할지로다。연원이 멀고 자손이 번성치 아니하고는 능히 족보하지 못할것이요、자손이 번성하고 효의가 돈독지 아니하고는 또한 능히 족보하지 못할것인즉 한번 족보함도 어렵거든 그 가히 두번째 하며 세번째리요。죽산 박씨는 족보가 네

번째 수선한 역사 마침에 이르러 박군병주가 서문을 나에게 물어보거늘 나 이르기를 박씨가 죽산에 관향한지 우리 동방에 거족이 되어 요사이 점점 떨치지 아니하나 그러나 효의가 폐함이 없고 효의가 폐함이 없은즉 떨치지 아니하여도 가히 떨친다 볼지로다。배양하면 성하지 아니하며 물이 고이면 새지 아니하는 이치가 있으랴。이제 이 족보가 진실로 박군이 조종을 높이고 종족을 수합하는 신고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여 천지백파가 四방에 산처하여 정과 뜻이 평소에 믿음직 아니하고 면모도 서로 접견한적 없으며 또 세도와 지위가 사람을 능동함이 없는 바에야 효의의 마음이 응종하기로 소리같이 하고 달리기를 목마름같이 아니한즉 어찌 수년지내에 일이 집중하고 공이 성취하기를 이같이 그 속할손가。나 보니 요사이 족보를 경기하는 자 혹시 천연히 여러해에 이르며 혹시 마침내 이룬바 없으니 핍절한 것이 재력이 아니라 사람이 시조에 다만 화주가 멀어감을 인정하여 대로 이어 기록하며 혈기의 서로 전함을 알고 먼 일가에는 길가는 사람같이 여겨 항렬 차례로 열서하여 가지와 잎이 서로 부친줄 알면 조손이 한체통이 되고 종족이 한 집안이 되니 보첩이 인기와 세교에 관계됨이 이러하도다。박씨 여러분은 그 진실로 금일의 역사를 즐겨함이 없이 더욱 한 체통과 한 집안의 의리를 힘쓴즉 박씨의 일가가 점차로써 창대할 것이니 곧 보첩의 대대로 기술할 뿐 아니로다。

註—壅—붓돋을옹 渟—물고일정 滀—물모일죽

左贊成公 號壺谷諱 苞 (忠順公의 二子) 派 一九一三年癸丑譜 序文

譜者譜其氏族之謂也祖宗愈遠子孫愈蕃而若久不修譜則食於妻食於苗者爲妻氏爲苗氏亦無恠矣是以潘岳之述家風陸璣之陳世德豈不慮此而有文有詞哉吾朴上自新羅始祖王肇得姓而世是草昧文獻不可足徵而暨于忠貞公勳業諱謚昭朊可考故其在中葉斷以忠貞公始爲譜自二修三修至于四修而推其日月及今三十餘年矣荀龍謝鳳之後豈可皆是龍也皆是鳳也若其德衰服盡自一家分爲一鄉自一鄉分爲一邑后屬漸疎錫名錫字做出自家意思則祖孫叔姪兄弟之行難可分析而視若路人矣有何仰答祖宗眷顧之靈哉古人云君子造基業於前而垂統緒於後爲可繼也可繼之道莫如修譜矣玆庸魏莫傳笏之意以若綿薄大同譜尚亦難矣詢于同派僉謀晝一於是乎稽之於古質之於今上述鼻祖之盛德中述官爵之巍烈下考子孫之名行屢月校正合爲一卷矣其在癸丑秋九月乃創剞劂始克成譜昭穆序矣行列明矣此實掌庾承周之懋蹟而正合於式相好矣之厚誼也傳曰思誠者人之道也又曰本立而道生孝悌也者其爲仁之本歟然則人若非誠何能以爲道乎推其思誠之道立此爲仁之本而東坡族譜序曰觀吾譜者孝悌之心油然而生豈不由於思誠之道而朊也自此以徃觀吾譜者孝悌之感發豈有古今之異哉後之人嗣而輯之庶斯譜之不匱也哉

歲癸丑(西紀一九一三)秋九月上澣　　後裔前外部主事濟九盥手　謹序

보라는 것은 그 씨족을 전부 수록하여 책을 만든 것을 이름이다。 조종은 더욱 멀어가

고자손은 더욱 번창하여 가는데 만약 오랫동안 족보를 닦지 아니하면 루라는 지방에 살면 루씨라 하고 묘라는 지방에 살면 묘씨라 하는 것이 또한 괴이할 것이 없도다。이러함으로 가풍을 말함과 육기가 세덕을 말한 것이 이것을 염려해야 글이 있고 말씀이 있음이다。우리 박씨는 위로 신라 시조왕이 비로소 성을 얻어 세대가 분명하고 문헌에 증거가 분명하고 三十一세 휘 기오시 충정공에 이르러 훈업과 휘와 시호가 밝게 기록되였음을 그 중엽에 있어 단연히 충정공으로 시작하여 족보를 두번 세번 네번 닦았으니 그 횟수를 추산하면 이제 三十여년이 되었도다。순용과 사봉후에(끝에 주석한다) 어찌 가히 다—순용과 사봉일 수 있으리오 만약 그 덕이 쇠하고 복이 다하면 일가로부터 갈라져 일향이 되고 일향으로부터 나뉘어 입읍이 되여 후손이 점점 떨어져서 이름과 자를 각기 자가의 사대로 지여 쓰면 조손 숙질형제의 항렬을 가히 분석할 수가 없어서 서로 길에 지나는 사람처럼 보게되니 조종께서 권고하시는 영께 무엇으로써 앙답하리요。고인이 이르되 군자는 그 엽을 먼저 만들고 통서를 후에 미루어 가히 계승하나니 가히 계승하는 도는 족보를 닦는것 만한 것이 없도다。이에 위모(사람이름)의 전훌을의 뜻을 면박한 대동보는 오히려 또한 어려운 일이로다。동파 첨모에 순하여 뜻을 같이하여 옛적을 상고하고 지금것을 살피어 위로 비조의 성덕을 말하고 중으로 관작의 위열을 말하고 아래로 자손의 일흠과 항열을 고찰하여 여러달간 교정하여 합하여 일권을 만든다。그해 계축년 가을 구월에 인쇄에 부쳐 비로소 파보를 이루니 소목이 펴지고 항열이 밝혀지었다。이 실로 유승주의

무적을 맞고 정히 식상이 좋아서 후의에 맞았다。전에 가로되 정성을 생각하는 자는 사람의 도라 또 가로되 근본이 서야만 도가 생기며 효제라는 것은 인의 본이 되는 것이다。그러한즉 사람이 만약 진실하지 못하면 어찌 능히 도를 하겠는가、그 정성을 생각하는 도가 시면 이것이 인의 근본이 되며 동파의 족보 서문에 가로되 우리 족보를 보는 이는 효제의 마음이 유연히 생길지니 어찌 정성을 생각하는 도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겠는가、이로부터 우리 족보를 보는 이는 효제하는 마음의 감발이 어찌 옛날과 지금과 다를수 있겠는가、뒤에 사람이 이어서 편집한다면 거의 이 족보가 없어지지 아니할진저。

※龍仁郡 外四面近三里 在芸의 曾祖考임

註解 ①荀龍은 荀氏집에 아들이 八兄弟인데 다—貴히 榮達하여서 八龍이라고 한 古史。

②謝鳳은 謝氏집에 子孫이 다—貴히 되므로 鳳이라 稱한데서 나온 古史。

忠順公派一九二四年 甲子派譜序

歲甲子竹山朴氏派譜成譜始於 英祖辛卯再三修於 正祖戊午哲宗乙卯至 高宗己卯而四皆普之也今則專於爲忠顯公之後者故曰派董其役者弘文侍講海昌以不佞之與爲彌甥也俾序之則不敢辭作而復曰善矣哉譜之爲物也整世次辨宗支有古者大小宗之法焉志其生終年月事行之概者猶史之有策焉尊祖而合族百代而一室繇是而孝悌之心發焉則又未心非爲仁之餘衍而萬一風化之其也譜不亦善乎及四紀而修焉時則然與其久而不能遽普也毋寧派而專之之易事則然時詘而擧贏事半而功倍之則

有司之力也不亦善乎雖然譜家家有也爲之序者言人人無異況有四譜之序在又敢多乎哉竊念吾東諸朴爲赫居世太祖之裔而貫竹山者宗八王子之一在新羅千年之間衍慶屬籍固其所也高麗氏之王也太保公父子實爲元勳圭組奕寫五百年矣暨其訖也忠顯公變名遯于萬壽山中爲杜門七十二賢之倡其高風逸韻孰得而泯之故其子孫類能砥身澡行思世其家而逞逞多忠義聞人至于今又五百年矣嗚呼年運而往矣天下之變故極矣今日而譜成焉烏能無俯仰感發念先苾後之意也哉傳曰禮不忘其本樂樂其所自生勗之而已是爲序

新羅赫居世甲子紀元后一千九百二十一年甲子二月朔朝

外裔嘉善大夫奎章閣典製官侍講院侍讀 海平 尹喜求 序

해갑자에 죽산박씨 파보가 이루니 족보가 영조신묘에 시작하여 정조 무오년과 철종 을묘년으로 고종 기묘년에 이르기까지 재삼 수선하니 네번이나 커졌도다。지금인즉 오로지 충현공의 후손만 위하는고로 파라 하고 그 역사를 감독하는 자는 홍문시강해창이 민첩지 못한 나로써 외손이 된다하여 서문하라 한즉 감히 사양치 못하고 일어나 다시 가로되 착하도다。족보의 물건됨이여 대차례를 정연히 하고 종파와 지파를 분변하여 옛적에 대종과 소종의 법이 있으며 그 생졸년월과 사적과 행실의 대개를 기록하는 자 사기의 국책이 있음 같으며 선조를 높이고 일가를 합하여 백대로 갈수록 한집이 되니 이모 말미암아 효제의 마음이 우러난즉 또 반드시 어진것을 하는 남은 술업일 뿐만 아니라 만분의 일이라

도 풍화의 도구가 될지니 또한 착하지 않은가? 오십년이 밎어 닦은즉 때는 그러하나 그 오래됨으로 문득 크게 할 수 없으며 파라 하여 오로지 쉽게하면 일인즉 그러하나 때가 굴하여도 넉넉하게 여기며 일이 반이 되어도 공이 간절한즉 유사의 힘이니 또한 착하지 아니한가、비록 그러나 족보는 집집마다 있으며 서문을 하는 자는 말함이 사람마다 다름이 없거던 하물며 옛 족보의 서문이 있으니 또 감히 말을 많이 하겠는가、그윽히 생각하니 우리 동방에 모든 박씨는 혁거세태조의 후예가 되였는데 죽산에 관향한 자는 八왕자의 천재로 신라 천년지간에 있어 경사를 넓히고 국적에 속함이 진실로 그곳이요 고려씨가 임금할제 태보공의 부자가 실로 원훈이 되여 오백여년동안 과한이 많았으며 왕씨가 마칠제 충현공이 이름을 변경하고 만수 산중에 숨어 두문동 七十二현의 인도자가 되니 그 높은 바람과 뛰어난 운치를 뉘가 살아지게 하리요 그런고로 그 자손들이 능히 몸을 닦고 행실을 조촐히 하여 그의 세가로 왕왕히 충의가 사람에게 들려온지 이제까지 또 오백년이 되였도다。오호라 연운이 다 갔고 천하의 변고가 극도에 다 하였도다。오늘날에 족보를 이루니 어찌 능히 부양하고 감발하여 선조를 생각하고 후손을 도울 뜻이 없으리요 전에 가로되 예는 그 근본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악은 그 붙어난 바를 즐겨한다 하였으니 힘쓸 따름이로다。이에 서문하노라。

忠顯公派一九五五年 乙未派譜序

族之有譜猶國之有史凡有族不可無譜而不知尊祖重宗之義難乎明其義例矣朴氏乃檀箕以來名賢達官歷歷可數而如文烈文匡功存宗祊澤及生民豊功偉烈昭載國乘文匡乃高麗二十四賢之首而忠顯公之貞忠孤節不愧爲圃牧并稱草谷公當壬辰島夷之亂英風偉烈恨不復起公於九原矢窮刀折中丸而卒嗚呼烈哉其後尤春兩先生祭文肅廟丙辰時祭文海東日星何其壯也其後謀復萬東廟等疏此何等力量何等氣岸此可見源淵之正門規之篤有近世規範之所可擬也豈不壯哉豈不盛哉知所以尊祖所知以重宗而譜體得矣惟願同譜諸公盍相與勉焉哉

歲乙未小春

蔚山 金度中 序

일가에 족보 있는것이 나라에 사기 있는것 같나니 일가가 있으면 족보가 없지 못할지니 선조를 높이고 일가를 소중히 여기는 의리를 알지 못하면 그 족보의 의례를 밝히기 어렵도다。박씨는 단군 기자 써옴으로 명현과 달관을 역력히 가히 세일 수 있으니 이러타시 문렬공과 문광공은 공이 종방에 있고 은택이 생민에 미쳐 풍후한 공훈과 위대한 업이 소연하게 국사에 기재되였으니 문광공은 고려 二十四현의 첫째가 되며 충현공의 정충고절은 포은과 목은으로 아울러 일컬음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초곡 공은 임진년도 이의 난리를 당하여 영렬한 바람이 다시 공을 九원에 일으키지 못하고 활살이 다하고 칼이 꺾어져

탄자에 졸함이 한이 되니 오호라 영렬하도다。그 후에 우암과 동춘 양선생의 제문이며 숙종 병진년 제문은 바다 동쪽에 해와 별이 어찌 그 장한고 또 그 후에 만동묘를 회복하는 등의 산소는 이것이 어찌된 역량이며 어찌된 기안인고 이에 가히 연원의 바른 길과 문규의 독실함이 근세에 규범으로 가히 의망할 수 있으니 어찌 장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리요 써 선조를 높일줄 알곡 써 일가를 소중히 여길줄 알아 족보의 체통을 얻으니 오직 원하건대 족보를 같이하는 여러분들은 어찌 서로 더불어 힘쓰지 아니하리요。

庚子譜序一九六〇年 第五次大同譜

天下之生久矣瓜 之綿古矣大則分分則愈蕃理固然也擬範圍而彌綸之安得不從程夫子正倫理篤恩義收宗族厚風俗之訓乎所以各家之譜有作也以我世代言之則在羅派出璿源在麗累世卿相至李朝中葉而聞人碩德非但輝耀一世至鳴中華德行事業垂諸史册則子姓之蕃衍其亦宜矣一世二世至於累十世之積沿而下之愈分而益繁散居八域秦越之視勢安能免乎哉前輩長德爲是之懼惟我竹州之姓區別以十一派使按牒可考而雖路上行人不面之地及相遇也則知其爲某祖之裔而相親愛也前此四擧亶不外是而伊今事巨力綿勢難湊集故特用奮心彈力跋涉宇內而雪天夏潦航海梯山週遊宗支派發其論議則不約而若合符節人僉謀而事共贊斯譜之修豈偶然哉去古雖遠遺譜尚存推以取沿流求源之義欲副前等之修道無異以滄海粟力辦泰山之功只以心誠事達之義又將其擧此豈非祖宗在天之靈諭之以其衷歟嗚呼溯以上之此正眞源可溯之秋也巍之堯業亦此而已則祖宗積累有素投桃報李而子孫繩之從

可想矣願吾諸宗不置今日之念而忠恕以守之各思所以勿忝外此諸般說話前人之述已備故此不復焉

新羅紀元二千十七年庚子清和節　　後孫　漢朝　謹識

천하가 생긴지 오래고 자손이 번성함이 예로다。 큰즉 나누고 나눈즉 더욱 번성함은 이치가 진실로 그러하도다。 범위를 의지하여 크게 이을진대 어찌 정부자의 윤리를 바르게 하고 은의를 돈독히 하고 종족을 수합하고 풍속을 후하게 하라는 훈계를 쫓지 아니하리요。 이로써 각집에 족보를 지음이 있는 바라 우리 세대로써 말한즉 신라에 있어 분파가 구슬근원에서 낳으며 고려에 있어 누대로 재상이 되었고 이조 중엽에 이르러 들리는 인물과 큰 덕망이 다만 한 세상에 빛날뿐 아니라 중국에까지 울리였으니 덕행과 사업이 사책에 소소하게 기재되었은즉 자손과 성씨의 번성함이 또한 마땅하도다。 한대와 두대로 여러 십대에 이르러 쌓이고 흘러나려 더욱 나누고 더욱 번성하여 팔역에 흩어져 살며 진나라로써 월나라를 보는것 같으니 이 형세를 어찌 능히 면할손가。 전자에 덕스러운 어른들이 이를 두려하여 오직 우리 죽주의 성씨로 十一파로 구별한 것은 보첩을 상고하면 가이 자세하여 비록 길우에 사람으로 면목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만일 서로 만난즉 그 아무의 선조의 후손이라 하여 서로 친애할줄 알게 되니 이전에 네번 족보역사를 든것은 다만 이외에 없는데 지금와서 일은 크고 힘은 적어 사세가 주집하기 곤란한 고로 특히 써 마음을 분발하고 힘을 다하여 우주안에 발섭할제 눈오는 하늘과 여름 장마에 바다에 배도 타

며 산에 사다리로 하여 두루 종파와 지파에 놀며 그 의론을 발한즉 언약지 않아도 부절이 합한듯 하며 여럿이 꾀하여 일을 한가지 주어 이 족보를 닦는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리요。지나간 옛날은 비록 머나 끼친 족보는 오히려 있으니 따라 흐르는데 근원을 구하는 의리를 취하여 전자에 닦은 족보를 받들고저 하니 창해에 조알같은 힘으로써 태산의 공을 파출함과 다름이 없이 다만 마음이 지성하면 일이 통달한다는 의미로써 또 이 역사 드는것을 가지니 이것이 어찌 하늘에 계신 선조의 신령이 그 충심을 효유하여 주심이 아닌가 오호라 거슬러서 올라가면 정히 참된 근원을 가히 찾을때로다。외외한 당요의 덕업도 또한 이뿐이로다。연즉 선조의 적누지공이 근본이 있어 복숭아를 던져주면 외얏으로 보답하는 이치인즉 자손의 승승함을 따라 가히 상상하겠도다。원하건대 우리 여러 일가는 금일의 생각만 두지말고 충성과 어진 마음으로써 지키어 각각 선조에 욕됨이 없게 하는바를 생각할지어다。그외에 저반설화는 전인의 지은바에 구비한 고로 이에 다시 아니함。

竹山朴氏壺谷公派系圖

- 一世 奇悟
- 二世 述
- 三世 忠淑
- 四世 温裕
- 五世 衡
- 六世 永侯
- 七世 挺斅
- 八世 育和
- 九世 仁碩
- 一〇世 文成 陰城得寬 / 犀
- 一一世 昳 / 宋 / 窖 / 寬 / 實 固城得寬
- 一二世 自安
- 一三世 彬
- 一四世 奕連 / 奕忠
- 一五世 實老 / 元茂 / 守敬 / 實生
- 一六世 希吉 / 專吉

挺燮—肇開—玄球—益旌—煇—全之 文匡公—遠 文康公—仁龍 入中國云—禧

- 文珐—永忠—翊 / 翺 / 華
  - 頤—云愼
- 德龍—形—仲容
  - 雁—日昇
  - 純—仲宜 / 仲游 / 仲實 / 仲遇
- 壽龍—興茂—文貞
- 文和—季以—承秀
- 門壽 見下

直提學公派

典書公派

別將公派

提學公派

- 一四世 門壽 見上
- 一五世 叢 / 芭 左贊成公
- 一六世 子良 / 宗義 通德郎公
- 一七世 欽 / 存 將仕郎公
- 一八世 繼文 秉節校尉公
- 一九世 孝參
- 二〇世 淳卿 權管公
- 二一世 春禎 通德郎公
- 二二世 龍雲 判決事公
- 二三世 忠南 右承旨公
- 二四世 耉賢 工曹參判公
- 二五世 尚裕
- 二六世 挺道 / 致道
- 二七世 瑊
- 二八世 聖讚
- 二九世

見下